

교리와 성도의 삶(1)

창조주 하나님

-사43:10-13

피조물들의 최고선

1.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선은 누구일까?

→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한 사람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매순간마다 영원하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창1:1) _____.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

1. 인간들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 생명이 없는 것들, 비이성적인 피조물(식물), 그리고 동물들은 참다운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란 감각적인 의식이나 욕구뿐이며 영적인 것에는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인간들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 없다.

(시8:5-6) _____.

2.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가?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 때문에 지식과 의와 거룩의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아직도 “작은 잔여물”이 남아 있어 이것으로도 그에게 모든 죄책을 느끼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원래 고귀함과 신적 소명과 하늘의 운명을 지속적으로 상기할 수 있다.

(창3:8) _____.

3.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다른가?

→ 인간 역시 동물들과 똑같이 감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욕구의 세계를 넘어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높고 선한 곳에 이르러자 하는 의지를 받았다. 이 의지는 그 자체로는 영원불멸한 영적인 선이다. 따라서 그의 의지는 계속해서 고귀한 절대적 선 안에서만이 안식을 누린다.

(전3:11) _____.

4. 이런 이성과 의지를 인간의 어디에 두셨는가?

→ 육체는 “심장”이 피를 순환하고, 피의 근원이고, 육체의 최고기관이라면,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마음”이 인간의 고상한 생활의 근원이고, 우리의 자의식, 하나님과의 관계, 법에 순종하는 것의 근원이다. 우리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성경은 이성과 의지를 인간의 “마음” 속에 두셨다고 말한다.

(잠4:23) _____.

인간의 만족

1. 현재의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 인간은 감각적인 땅의 것이요 제한된 존재요, 죽을 존재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둔 존재요, 영원한 것을 찾으려 의도된 존재이다.

(시49:7-9) _____.

2. 인간에게 만족을 줄 것으로 현혹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 인간들은 과학, 예술, 문화, 봉사,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 이웃사랑, 휴머니즘 등을 이상적인 가치로 이해하며 이것들이 인간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감각적인 땅의 보화에 대한 호기심들이 인간들을 만족시킬 아무런 힘이 없고 인간의 높은 운명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

(요일2:17) _____.

3.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만족을 얻을 것인가?

→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통치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사57:15) _____.

결론

→ 과학이 인간의 신적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깊은 타락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가지 사실을 알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이므로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모든 삶의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사43:10-13) _____.